

# 기 념 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74주년 6. 25전쟁 기념식에 모여 대한민국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께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참전 중 부상을 입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용사 여러분과 미망인,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완도군 6.25참전 국가유공자 김윤용 지회장님, 상이군경회 박철암 회장님,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옥균 회장님, 전몰군경유족회 양응수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서영순 회장님, 고엽제전우회 신왕석 회장님, 월남전참전자회 이충

열회장님, 재향군인회 임정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이철, 신의준 도의원님,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

74년 전, 우리나라는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수많은 용사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의 참상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조들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6. 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더욱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4주년 6. 25. 전쟁 기념식”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참전용사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